

## 2. 林園十六志 解題

洪 以 變

徐有榘(號는 楓石, 字는 準平, 英祖40年 1764)의 林園十六志(113卷, 目錄)은  
林園經濟志 또는 兩者를 合하여 林園經濟十六志로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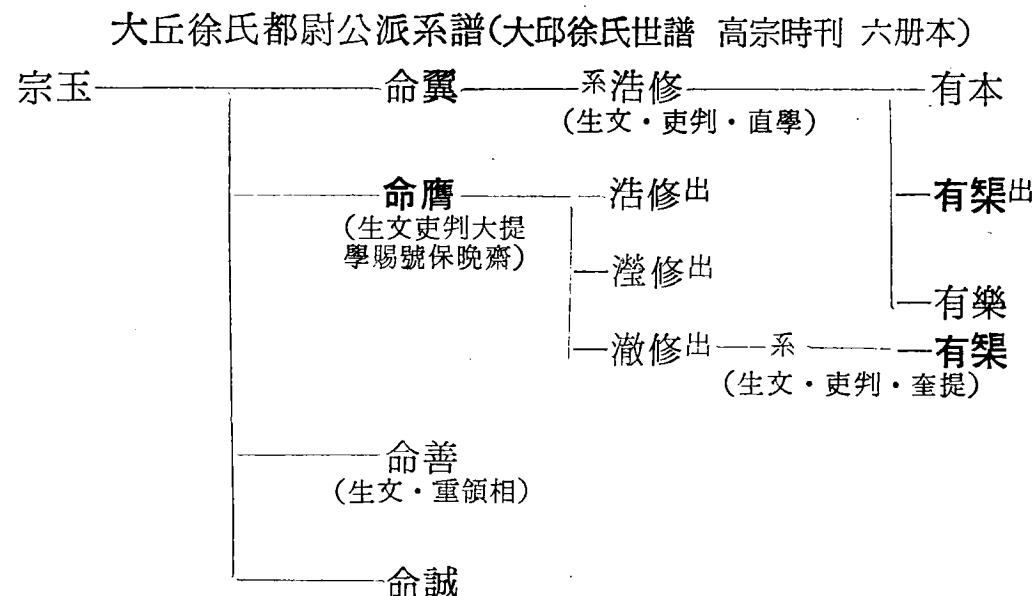
筆者가 過眼한 바로는 壯重히 筆寫한 一部가 某處에 있었으나, 다시 보이지 않고 國內 現存本으로서는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藏(原奎章閣圖書一當時의  
轉寫인듯一가 前京城帝國大學에)寫本 一部(現高麗大學校所藏本은)가 唯一한 것이다.

徐氏「家藏原本(自然堂經室의)은 日本 大阪府立圖書館等에 收藏되어 있다」  
(三木榮著「朝鮮醫學史及疾病史」刊)고도 한다.

이제 서울大學校에서 그 所藏本을 影印함에 있어서 本文을 따지는 일은 後日로 미루고, 우선 近世 英·正·純三代에 걸쳐 莳興하였던 實學의 一貌를  
日常의 机側에서 손 쉬웁게 다룰 수 있게 되었음은 同好의 學究와 함께 즐거워 할 일이다.

지금까지 그 内容의 學的利用과 質의 價值는 제대로 論究되지 않은채 一部世人의 입에 오르내렸을 뿐이었던 原文에 接하게 됨은 무엇보다 斯學研究에 또 새로운 길을 터놓는 셈이다.

纂者 徐有榘의 經歷을 그 家系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纂者는 出生과 더불어 家閥과 國家, 그리고 官을 背景으로 한 까닭에 그의 學의 體系化에 있어 이 現實的 條件이 82의 壽와 함께 어떻게 作用하였으며,企圖한 그것이 보다 實用的이고 官學的일 수 있게 된 緣由를 짐작케 한다.

正祖 14 年(1790)	庚戌(23 歲)	文科及第
純祖 2 年(1802)	壬戌(39 歲)	義州府尹
5 年(1805)	乙丑(42 歲)	成均館大司成
26 年頃(1826)		楊州牧使
27 年(1827)	丁亥(64 歲)	江華府留守
31 年(1831)	辛卯(68 歲)	刑曹判書
32 年(1832)	壬辰(69 歲)	藝文館提學 · 大司憲 · 禮曹判書
34 年(1834)	甲午(71 歲)	湖南巡察使로 고구마 栽培를 勸함
憲宗 元年(1835)	乙未(72 歲)	奎章閣提學 · 吏曹判書
2 年(1836)	丙申(73 歲)	檢校直提學
4 年(1838)	戊戌(75 歲)	大司憲으로 6 月 己卯에 上疏하여 旱害對策을 論함 (憲宗大王實錄 卷5, 6~7 張 4 年 戊戌 6 月 己卯條, 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48冊, 458~9面)

이와 같은 經歷은 家學과 官學의 影響 아래 構築되었다.

그의 祖父 保晚齋 徐命膺은 英祖 47 年(1771) 辛卯 「攷事新書」纂輯의 序에서 「此書 欲使達官 · 窮儒 · 大人 · 小民 · 逸士 · 行旅 無乎不觀…」이라 하여 누구에게나 日常에 繁한 册子로서 利用케 하고자 하였다.

地理 · 紀年(歷史) 典章(戶刑의法) 農圃 · 牧養 · 武備…等으로 官學의 體系에 있어

「農圃牧養 治生之大者 匹夫而不務乎此則不能理家 字牧而不務乎此則不能守土 朝廷而不務乎此則不能保民…何嘗有忽於農圃…牧養哉 故於此數者 特詳著其理」라 하였음에서 先行의 洪萬選의 「山林經濟」 4 卷(肅宗 41 年 1715 乙未) 을 繼承하여 2 倍로 擴充한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 16 卷(英祖 42 年 1766 丙戌)에 나타난 日常 山林의 諸般 經驗 · 知識 · 技術 等과 當時 官吏들의 執務

案內書였던 魚叔權의 「攷事撮要」(初刊 明宗 9年(1554) 甲寅에 이어 王辰亂前 宣祖朝에서 4種, 亂後 光海~英祖에 걸쳐 6種 刊行)의 指示와 綜合 要約된다.

英祖朝의 「攷事撮要」刊行은 「使兩館提學主管刊印攷事撮要」(英宗 大王實錄 卷57, 20張 19年 癸亥 3月 己未條, )라 하여, 이 무렵 「受敎輯要」와 「五禮儀」의 增補 整理와 함께 되는 일로 制度整備의 氣運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의 「攷事新書」 일진데 그 纂輯者 徐命膺의 孫 徐有榘에 있어 林園經濟志 纂輯에서 곧 이 學風을 繼承하게 되었던 것이다.

十六志의 類聚도 「山林經濟」의 占居・攝生・治農・治圃・種樹・養花・養蠶・牧養・治膳・救急・救荒・辟溫・辟蟲・治藥・選擇・雜方 等 16條와 關聯 있다고 하기 어렵다.

林園十六志(經濟志)의 纂輯의 뜻은 그 例言에서

「凡人之處世 有出處二道 出則濟世澤民其務也 處則食力養志亦其務也 顧濟世之術 一應政教無非 所需固多 備述之書 至於鄉居養 志之書 少有裒集者 在我邦僅有山林經濟一書 然中多冗瑣 所探亦狹人多病之 故於此略採鄉居事宜分部立目 搜羣書而實之 以林園標之者 所以明非仕宦濟世之 術也」라 한데서 政教에 있어서나 一般의 日常生活에 있어 繁한 일을 살펴보고 알리고자 하여 纂輯함에 그 底本은 「山林經濟」(三木榮은 博物學의 權輿니 記述은 多分히 學)이었고 窮極의 目的是 「林園」이라 指標한데서 「山林」의 뜻을 그대로 지니는 것은 「非任官濟世之術」이라 한데서 뛰렷하다.

내용을 보면

— 本利志(經濟志卷)는 仁濟志(卷60~87乾)를 除하고는 가장 많은 分量으로 13卷에 걸쳐 農事技術을 다루고 있다.

1. 田制 2. 農業水利 3. 土壤地質, 農業地理 氣象 4. 開墾, 耕田, 肥料 5. 擇種, 穀種, 6. 收穫, 貯藏 7. 穀名(乾番, 番에 따라 分類함. 杏浦志에 의하면 卷5 第4面 1行中 「麻 大豆 小豆 小麥 爪段成式以爲黍稷稻梁」의 17字가 있었으나 本書에는 이것이 漏記되어 있음.) 8. 風水害(氣象에 따른 被害, 病蟲害 9. 農家行事表(月曆)一 農家月令에서는 中國것과 比較 檢討하여 朝鮮 것을 實際的으로 다시 整理하였다. 10~11. 農器具耕作 收穫으로 區分하여 그에 使用되는 諸具를 圖解 說明하였다. 12~13. 灌溉圖解一 農業水

利의一說明에 朝鮮·中國에 걸쳐 各種 農書의 指用과 在明·清 西歐 宣教師의 知識을 受容한 徐光啓의 農政全書와 또 熊三拔(Sabbathin de Ursis)의 泰西水法(6卷, 1627), 鄧玉函(Jean Terrenz)의 奇器圖說(3卷, 1627) 等 새로운 西學의 知識과 中國의 王氏農書와 朝鮮의 海東農書(徐有榘의 生父徐浩修撰)等이 利用된다.

泰西水法은 李瀨, 奇器圖說은 丁若鏞, 農政全書는 일찌기 이 系列의 學人이 問題삼았으나, 朴趾源의 課農小抄에서 全面적으로 參酌되었고 王氏農書도 같이 利用되었던데서 學의 漸進的인 推移를 보게 한다.

그의 「搜羣書」한 바는 經濟志 全面에 걸쳐 文獻學의 으로 檢討를 要하는 것으로 아마 後日을 기다려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그 一面을 보는 것으로 멈춘다.

文獻 引用에 있어서 詳密, 正確과 自己의 意見으로 「朝鮮의 實際」의 指示(架槽一按我東嶺南人 多用此法……亦山鄉水利之不可不講者……本利志12, 圖譜上18張)는 過去의 古典的인 方法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되도록 我東——朝鮮——의 것을 理解하는 方向으로 集約코자 하여 萬全을 期하였음을 全卷에서 엿볼 수 있다.

本利는 그 本文 첫머리에

「曷爲而名本利也 前志有之春耕爲本 秋穡爲利 本利者耕穡之謂也…」라함과 같이 例言의

「凡耕織種植之術 飲食畜獣之法 皆鄉居之需也 占候以勸農 相基以卜築 及夫殖貨 營生死 器利用之節 亦所宜有故 令所蒐採也 食力困備矣 居鄉清修之士 豈但爲口腹之養哉…」함으로써 農耕을 第一 爲主로 하였다.

山林經濟는 일찌기 物名을 한글로 적었으며 增補山林經濟에서도 穀名(卷之二) 樹名(卷之三)에 우리 이름을 한글로 또는 漢字로 音寫함과 같이 本利志 穀名敍는 杏蒲志에서 이끌어 왔다.

杏蒲志는 卷五·六, 1冊(半葉匡廓 19.5×13·5厘米, 9行, 1行 20字와 版心下右便에 「楓石庵書屋」이라 印刷된 바탕에 精寫——卷之五는 「圖書」第7號 1964年 乙酉文)이 現存(吳漢根)하는 細註에는 우리 穀名을 한글로 적고 있다.

이것은 山林經濟一增補山林經濟 그리고 이 系統을 밟는 朴趾源의 課農小抄(燕巖集卷之十六 朴)에도 보였던 바나, 더 많은 品種을 들고 있다.

杏蒲志와 이번 影印되는 經濟志의 記寫에는 出入이 있으나, 詳考는 다른 날로 미루어 둔다.

本利志卷9 田家曆法에서는 「參用王禎授時圖 徐光啓授時編」이라 하여 農家の 月令을 從前의 것과 달리 表解를 하였으며 이에 머물지 않고 「新定田家曆表」를 附함에

「王禎授時圖 徐光啓授時編 往往較吾東農候…準漢陽節氣 撰者如左南北二百里…」(7張)라 하고, 다시 十二月令을 作成하고 있음은 農事의 技術的 指導政策을 보는데 歷史的으로 貴한 資料일 것이다.

二 灌畦志(卷14)<sub>~17</sub>는 14. 耕作, 栽培, 收藏 15. 蔬菜, 芹菌類 33種을 自然生에서 河海의 水草, 海草로 區分하여 論하고 稽經, 增補山林經濟, 杏蒲志를 利用하였다.

三 藝畹志(卷18)<sub>~22</sub>는 18. 栽培, 水藏 19~21에 걸쳐 花草 65種 22. 花名論攷(牧丹等)<sub>4種</sub> 이러한 것은 經濟志에 앞서 自身이 抄記하였던 金華耕讀記에 依據하였다.

一例로

「東國菊品 甘菊, 深黃多葉, 細徑可寸餘, 開以九月, 與中國甘菊同」(金花耕讀記 39張)이라 함을 볼수 있다.

四 晚學志(卷23)<sub>~27</sub> 23. 果樹와 茶, 竹, 燈心草 等의 栽培, 收採, 利用論 24. 果樹 31種 其他 山野의 自然生 25. 茢類로 分類, 葡萄, 西爪, 五味子, 甘藷, 落花生 等 26. 木類, 松, 檜, 白楊, 枸杞 等 27. 雜類라 하여 茶, 燈心草, 竹等13種을 論함으로써 本草學의 知識에서 利用한 植物의 品種에 따른 區分을 하였다.

五 展功志(卷28)<sub>~32</sub>는 28~9, 蠶績, 桑木栽培에서 養蠶, 山蠶養殖, 이어 織紝 染色 30. 麻績은 麻의 栽培에서 紡織까지, 綿績은 木綿의 栽培에서 紡織까지 31, 蠶桑圖譜(附)苧麻의 栽培 收採의 圖解 32, 紡織圖譜은 清의 「耕織圖」의 影響을 받아 朝鮮것도 實際에 即하여 具體的으로 그 技術의

것을 論證하고자 하였다.

蠶桑圖譜에서 東國織法을 論함에 있어서 農事直說과 金華耕讀記의 引用보다 自身의 「鵝蟀志」에 依하여 各 地方產 織物을 叙述하였으며 紡織法이 中國과 大同小異함은 「天工開物」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그 다른 點을 指摘하는데

「績麻之有蒸石法 我國之俗也…苧之蒸房 我國俗也…我邦之人 呼紡車曰文來車…」等 20 條에 달한다.

六 魏鮮志(卷33)의 33~4, 候歲(高麗大學校)는 原來의 天文氣象 觀測이 占候的인 데서 占이라고 보는 面을 山林經濟 以後 繼承하고 있으나 12個月의 測候를 論하여 占天氣象을 15個 項目에 걸쳐 列舉하지만 이미 成周惠의 科學的 整理로 書雲觀志가 刊行되어 있으므로 더 말할 必要가 없다. 함께 草木·占穀 等 11個 項目的 農業氣象에 關한 占候의인 것 35. 候風雨에서 같 이 氣象, 天體에 關한 觀測一占으로 豫報함을 指示 36. 候歲는 占星一占運이다.

七 佃漁志(卷37) 37~8, 牧養總論, 馬, 牛, 羊, 狗, 猪, 鷄, 養蜂에서 猫, 鷺鴨 等의 實用的 飼養까지 論華東牧養之異…朴齊家의 北學議와 豫防牛疫方에 自己의 「蘭湖漁牧志」의 利用에서 이 方面에 留念하여 準備가 있었음을 알리고 또 玩賞 39. 戈獵 매, 개 사냥에서 銃一활 또는 陷井一덫 等 各樣의 方法, 漁釣에서 漁網釣籍과 그 잡는 方法 및 道具의 說明 40. 魚名 放에서 江魚(淡水)와 海魚(鹹水)의 說明, 丁若銓의 「茲山魚譜」에 據하는 一面을 볼 수 있다.

八 鼎俎志(卷41) 41. 食鑑撮要, 食品, 水(水土), 穀, 菜, 菓, 獸(肉), 禽(날짐승) 魚類의 記錄, 調理法과 食飲의 類別을 詳述, 이러한 것은 閨閣叢書, 山林經濟에 보인다. 42. 炊餚之類로(鬻·餅餌·), 43. 飲清之類는 湯, 茶, 烫水, 熱水 等에 論及, 菓飮之類, 煎果 6種의 類別과 그 製法 44. 咬茹之類는 各種菜에 對하여 45. 割烹之類는 그 類別과 調理法 46. 味料之類는 소금 醬 等 8種의 調味料 47. 醍醅之類는 各種 酒 비지의 法, 藥材 加味法, 飲酒法까지 說明하였다. 또 節食之類는 年中 名節에 따르는 飲食 차리

는 法 調理法一과 그 補遺, 本源의 으로는 「閨閣叢書」의 實驗的인 研究를 通하여 究明될 것이다.

九 謄用志(卷48) ~51 48. 營造之制, 宮殿, 住宅, 建築 및 그構造 49. 營造之具, 建築材料와 建築機器 50. 服飾과 裁縫諸具, 衣服의 儲藏, 男女가 머리를 빗고 손질 할때이었으므로 所用諸具로 盥櫛之具, 起居之具, 房에서 起居하는데 所用되는 寢具 等 諸具, 設色之具, 彩色의 原理와 그 調製는 물론 薫染(香料의 使用)에까지 細心히 叙述하였다.

卷 48 以下에서 中國制를 朴趾源의 热河日記 等에서 찾고 技工은 「天工開物」에서 理解를 하지만 建築構造(堂屋東制)는 絶對하게 朝鮮것을 自己의 「金華耕讀記」에서 抄記하였다. 51. 火燭一照明, 暖房에 있어 火爐와 炭(炭)과 取火 引火의 諸具, 騎乘之具—旅行用具로서의 騎具( 말타는데 所 )와 乘具—舟車, 起重諸器, 度量之具, 度量權(衡), 工制總纂에서 工作資料一木, 金, 玉, 石, 骨, 角, 皮革, 珠貝를 다루는 法과 技工者の 訓練 育成을 論하였다.

이러한 예는 앞서 丁若鏞의 「經世遺表」에서 論하는 「利用監」의 產業技術管理의 機能論과 合하여 볼 만한 것이다.

十 葆養志(卷52) ~59 말하자면 옛날의 養生論으로 52. 總敘에서 攝生과 戒忘( 특히 飲食에 있어 注意하여 避할 것 ) 할 것의 指示 53. 精氣神(心神) 54. 節食, 飲食調節 55. 修真按摩 56. 服食, 藥餌治療 57. 壽親養老, 老後療養 58. 求嗣育嬰, 養生月令表—節候에 마추어 攝生할 것을 月別表로 作成, 本草學의 知識에 育兒根據하는 것으로 攝生에 대한 것은 注視할 만하다. 그저 「中國的」(三長著 앞서 말한 360面)이라고 함은 「葆養志」自體의 檢討를 要한다.

十一 仁濟志(卷60) ~87 醫藥論으로 60~86 까지 漢方醫藥의 全般을 東醫寶鑑, 醫方類聚, 朴雲의 衛生方, 李景華의 廣濟秘笈, 康命吉의 濟衆新編 等 朝鮮醫籍을 들어 말하며, 물론 中國醫書를 利用, 日本의 三木榮氏는 「모두 이것을 原書의 依據하여 引照한 것으로 認定할 수는 없다. 애를 많이 쓴 精勵한 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책을 出色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三木榮著「朝鮮醫學史」及 疾病史 131~2面)하였다. 87. 救荒論, 이것은 前日 朝鮮의 儒教主義 國家政策의 一貌이었던 것으로 傳統의 繼承에서 온 것이며 救荒은 官이 民을

먹이는 거와 瘦疾의 治療에 있었으므로 仁濟志도 그 本을 따랐다.

**十二 鄉禮志**(卷88～92) 88～90은 通禮, 鄉飲禮, 鄉射禮, 鄉約 91～2는 冠婚喪祭禮이다.

**十三 遊藝志**(卷93～98) 六藝論으로 93. 讀書法一端正 深思할 것, 總論, 讀經史, 讀書次第는 「朱子語類」에 따라 要論 94. 算法 九數架略一實用數學의 解說 95. 書筏에서 書體, 書法, 李匡師의 「圓嶠書訣」을 끌어 이야기 하는 怡雲志의 東國墨蹟條에서의 圓嶠를 「東方數千所未有…」이라고 絶讚함과 脈絡이 있다. 96～7의 畫一繪畫論과 用品의 說明 98. 房中樂譜一玄琴, 唐琴, 洋琴, 笙箏의 樂譜와 그 解說, 六藝思想에서 體制를 갖춘것이었으나, 文人雅趣의 一端을 보이는 것이다.

**十四 怡雲志**(卷99～106) 99. 衡泌舖置와 怡養器具一文雅한 趣味에 關聯된 日用諸具와 文房具 100～101. 山齋清供; 茶, 香, 琴鉤, 花鳥, 禽魚에의 趣味 102. 文房具(建築工藝·文房諸具는 역시 金華耕讀記에 依據한다) 103～104, 藝翫鑑賞一骨董鑑賞 附東國金石, 東國墨蹟, 東國畫帖 等 鑑賞資料, 崔南善氏가 「北漢山碑가 眞興王碑임을 發見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徐有槃(省略 生卒)의 林園 十六志中, 怡雲志 卷第5 「東國金石」의 條에는 黃草嶺碑를 「眞興巡狩定界碑」라하고 이어 「眞興王北巡碑」라하고 「問菴錄」(原引用 文省略)이라는 것을 이끌었는데 이것은 金正喜와 거의 같은 때이거나 或은 한걸음 앞선 것 아닌지(青丘學叢 2의 74面 崔南善 「新羅眞興王의 在來三碑와 新出現」磨雲嶺碑参照)라 한데서 怡雲志의 聲價가 이 方面에 높았으나 「問菴錄」의 搜求와 함께 當代 우리 學人의 抄記로 된 稀少한 金石 文獻으로서의 「東國金石」은 金正喜의 「金石過眼錄」과 같이 金石學 또는 歷史的 資料로서 貴重한 것이다. 104～105. 圖書藏訪(購求 藏弃)은 鍛印一印刷 裝池一裝冊, 京外鏤板으로 되어 書籍 印刷와 書誌學의 整理, 京外鏤板의 板目은 經濟志에 앞서 그의 鏤板考에서의 抄記, 「鏤板考」는 1941年 서울(洪命熹校訂 서 울 大同出版社)에서 刊行되었다. 7卷 洋裝 菊判 凡例 2, 目次 14, 書目 266面에 比하여 寫本 24張 48面의 量으로 抄記한 것은 原著 鏤板考로 돌아가 볼 것이다. 역시 우리 書誌學上의 稀貴한 文籍이다. 106.. 名勝遊覽(이 中의 登陟符呪는 道教 關係 資料임)과 文酒宴會節食(名 節)宴會.

**十五 相宅志**(卷<sup>107</sup><sub>~108</sub>) 107. 占基總論—地理, 水土, 生理, 里仁, 勝槩, 避忌, 營治, 開荒, 種植, 建置, 井池, 溝渠 108. 八域名基—八域總論 名基品第와 名基條開

**十六 倪圭志**(卷<sup>109</sup><sub>~113</sub>) 109. 制用一量入爲出—收入에 따른 支出에서 節用, 浮費의 省略 戒禁 110~113. 貨殖—貿遷, 孳殖, 置產, 勤厲, 任使, 八域物產(八道), 八域場市(市場) 等이 곧 近世社會 經濟의 面貌를 보여 주는 것으로, 先行的인 著 金華耕讀記에 依據하였음은 물론 李瀨의 星湖僊說, 李重煥의 擇里誌, 朴齊家의 北學議에 依據하였다.

相宅志와 倪圭志에 걸쳐서는 南人學者의 現實的으로 抽象化된 學的 所產을 增補山林經濟 等의 體制에서 卜居論의 占基論으로 後退시킨 面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社會經濟面에 대한 現實的인 理解까지 탓할 수는 없다.

끝으로 八域里程表가 붙어 있다.

徐有榘의 林園經濟志의 朝鮮本 利用은 朝鮮知識의 테두리를 짐작케 한다, 經部 29 部中 五禮儀, 金長生의 哀禮備要, 成倪의 樂學軌範

史部 66部中 輿地勝覽, 名塢志(成海應의 研經齋全書), 濟州風土志, 漢陽歲時記, 京都雜志, 英宗朝 文獻備考, 東國金石評, 樹軒訪碑錄(怡雲志 東國金石條에 서 評, 錄으로 引揭) 李祖默의 羅麗琳鄉考, 權得己의 北征日記 等

經, 禮樂과 史地, 集 以外의 書를 一切 子部에 넣어 710 部를 들고 있다.

子部에서 漢의 桓寬의 鹽鐵論, 齊나라 管仲의 管子, 後魏의 賈思勰의 濟民要術, 元 司農司의 農桑輯要, 元의 王禎의 農書, 明의 徐光啓의 農政全書, 清代의 授時通考를 主로한 一聯의 農桑書가 朝鮮의 農事直說에서 姜希孟의 衿陽雜錄, 申夙의 農家集成, 許浚의 東醫寶鑑 및 醫方類聚(世宗朝撰), 朴雲의 衛生方, 李景華의 廣濟秘笈, 康命吉의 濟衆新編, 河百源의 自升車圖解, 東硯譜本朝, 嵌緣錄本朝 三山方本朝, 姜希顏의 蒜州養花錄, 李德懋의 輪廻梅十箋, 種蓼譜本朝, 甘譜譜本朝金, 丁若銓의 兹山魚譜本朝, 李仁老의 破閒集徐居正의 山居四要, 增補山林經濟本朝, 山林經濟補本朝, 李重煥의 擇里誌, 魚叔權의 故事撮要, 金堉의 潛谷筆譚, 李瀨의 星湖僊說, 柳馨遠의 磻溪隨錄, 李德懋의 蟬橘堂手抄, 耳目口心書, 青莊館入燕記 및 青莊館漫錄, 朴趾源의

熱河日記, 朴齊家의 北學議, 成海應의 研經堂雜志(研經齋全書寫一帙 高麗大學  
與其學術略述)參照, 稲葉博士李內齋博士「成研經齋  
還曆記念「滿鮮史論叢」所收  
集部十八部에는

韓百謙의 久庵集, 許箇의 許集, 李珥의 栗谷全書, 申翊聖의 樂全堂集, 南  
九萬의 藥泉集, 南有容의 雷淵集, 朴趾源의 燕岩集 等을 들고 있다.

附錄에 그의 祖父 徐命膺의 改事新書, 「箕子外紀」 및 「緯上」等 3種과 生  
父 徐浩修의 「海東農書」, 自身의 「金華知非集」「金華耕讀記」「杏浦志」「蘭  
湖漁牧志」「鶴峰志」「饗飪志」「鏤板考」를 舉示, 自己 著書 7種은 「老夫私  
述」이라 함에서 經濟志의 編輯이 그의 老後의 整理인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種譜譜」(1卷 1冊 活印, 純祖 34年 刊?)는 그가 經濟志에서 利  
用하는 「甘譜譜」(本朝)인 「金氏甘譜譜」(純祖 14<sup>年</sup>刊?)와는 달리 純祖 34年(1834)  
湖南巡察使로 나갔을 때 救荒의 對策으로 고구마 農事를 勸獎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에게는 「楓石鼓譜集」「楓石集」의 著述이 있지만 經濟志에서 그 역시 現  
實學派의 一人으로 個人生活의 基本的인 問題를 「農事」에 集中하여 論攷하  
였으며, 結論的으로 「口腹之養」으로서의 特히 市場經濟에 焦點을 두고 있음  
은 前日이 學者에 比하여 異色의이었고 百科全書式의 體裁에 있어 經學, 文  
學, 史學面에 있어서는 先行한 學者에 比하여 遜色이 있지만 앞서 말한 것  
은 마지막의 整理로서 事實의 客觀化에서 바른 見解를 指示하고 있는 等 異  
同出入으로 만은 따질 수 없다.

庶民的 意識이 展開되고 있던 純祖年代가 經濟志 形成의 歷史的 背景이었  
던 만치 西學을 口實로 하는 政爭, 國家財政策의 再確立을 위한 朝廷에서의  
諸企圖, 凶作, 飢饉의 繼續, 民擾, 疫疾, 國內 商業의 發達에 따른 通貨問題  
의 擡頭, 朝廷으로서는 이에 대한 對策이 繁要하였고 그의 諸施策을 講究施  
行하는데 傾注는 하였지만 金笠의 諷刺詩에 덧붙혀 世上을 흘겨 볼 만한 時  
代이었던 十九世紀 前半期의 學術史上 官學的인 데 依據한 것으로서 마지막  
의 體系的 整理가 徐有榘의 「林園十六志」이었다고 하겠다.

<筆者：延世大學校 教授>